

# 청년농업 예비 창업자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일한\*  
중앙대학교 교수

이은천\*\*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

## 국 문 요 약

예비 청년 창업농을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고 개인적특성, 사회적인식, 네트워크, 창농정책, 자기효능감, 주관적규범을 조사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개인적 특성의 하위 변수로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혁신성을 설정하여 자기효능감, 주관적규범, 창업의도와와의 관련성을 연구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8년 10월 2일 부터 2018년 10월 27일까지 농업관련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였거나 농업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 농업 예비 창업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의 동의를 얻어 설문지 300부를 배부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중 263부가 회수되었으며, 설문지 중 미응답이 한 문항이라도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5부를 제외한 248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년 농업 예비창업자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 중 위험감수성과 혁신성이 파악되었다. 또한 상관관계에서도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와 창농정책은 모두 창업 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 I. 서론

최근 높은 청년 실업률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 주된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박재환, 박명수, 김대엽, 2012). 농업분야에서의 청년 창업 활성화는 청년의 열정과 도전정신이 새로운 혁신으로 이어져 창업으로 이어져야 하고 창업을 통한 취업이 실업 해소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창업 농가들은 안착 전까지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데, 크게 자본적 요인(영농기반·시설, 운영자금), 기술적 요인(생산기술, 경영, 마케팅), 사회적 요인(인적네트워크, 주거 마련 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마상진, 2017). 이러한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와 창농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창업의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신하성(2018)은 개인적특성 중 혁신성과, 자기효능감이 창업 의도를 높인는데 영향이 있다고 연구했으며, 김유경(2018)도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

했으며, 송정현(2016)은 정부정책이 개인적특성을 매개하여 창업의도를 향상시킨다고 하였고, 김지혜(2016)는 주관적규범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청년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창업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창업의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개인적인 특성,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 및 창농정책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자기효능감과 주관적규범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농업분야의 청년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연구에 도움이 되고 창업의도를 높여서 지속가능한 농촌과 생명산업인 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에 참고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 2.1 개인적특성과 창업의도

청년 예비 농업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의 세부항목인 성

\* lih2114@cau.ac.kr

\*\* lec73@hanmail.net

취육구, 위험감수성, 혁신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개인적특성 중 성취욕구는 잠재적 창업가의 특성 요인 중 하나이며 주로 심리학 분야에서 자주 논의되는 변수로서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하는 의욕을 일컫는다(Haney, 1992). 성취욕구는 개인적 특성의 주요 변수로서 그들 환경 내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Cassidy & Lynn, 1989). 그리고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일수록 창업에 대한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취욕구가 창업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정연우·반성식, 2007).

위험감수성은 불확실한 창업환경에서 창업가들의 행동방향을 설정해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높은 위험성에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업가의 특성으로 중요하다(박지유, 2013). 또한 위험감수성이 높은 창업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예측하고 계산하여 수용 가능한 위험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Kuratko & Hodgetts, 2000). 그리고 위험감수성이 높을수록 창업효능감을 높아지게 한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유봉호, 2013).

새로운 과정, 제품 또는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혁신성은 기업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Hurley & Hult, 1998). 또한 혁신성은 창업자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적용할 경우 기존 상품 및 서비스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리빈, 2011). 그리고 혁신성이 강한 개인은 창업활동을 선호할 수 있기에 창업의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홍정표, 2014).

개인적 특성 요인인 성취욕구, 혁신성, 위험감수성 요인은 창업자의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H1: 개인적특성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1: 성취욕구는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2: 혁신성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3: 위험감수성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창업 관련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Bandura, 1997), 창업행동 수행 시 발생할 문제의 해결능력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의미한다(Hsu et al., 2007).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잠재적 창업자가 창업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자기효능감은 어려운 목표에 도전적인 성향과 난관에 대한 극복으로 나타난다(Bandura, 1977; Folkman & Lazarus, 1984).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청년 농업 예비 창업자의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적 특성은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과 자기효능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H2: 개인적특성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1: 성취욕구는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2: 혁신성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3: 위험감수성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the Behavior)는 의도적 행동을 이행하는 데 개인이 느끼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정의한다(Ajzen, 2001).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TRA)에서는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 행동의도로 자발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이론이며, TRA에 따르면 사람들이 특정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자신에게 중요한 주변 사람들에게 그 행동이 용인되었을 때(즉, 주관적 규범이 높을 때), 행동의도(동기)가 높아지게 된다(김지혜, 2018).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모델에 의하면 기업가가 되려는 의도와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 사이의 관계는 협소하게 나타나지만 의도는 행동을 설명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며, 기업가적 행동을 하려는 시도를 나타낸다(Liñán,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특성과 주관적규범 사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H4: 개인적특성은 주관적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1: 성취욕구는 주관적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2: 혁신성은 주관적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3: 위험감수성은 주관적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 주관적규범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사회적인식과 창업의도

창업이 이루어짐에 있어 단순히 개인적,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요인들이 창업의도 및 창업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KE Learned, 1992). 또한 경력지향성, 자기효능감 이외에 개인이 처한 환경, 사회적 지원과 역할, 그리고 사회적 인식 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윤방섭, 2004). Gnyawali & Fogel(1994)의 연구에 의하면 창업 및 기업가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적 인식은 창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어 개인이 경력선택으로서 창업을 결정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권석일, 2016). 또한 다른 연구에서도 사회적 인식 및 창업정책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성우, 2009). 선행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인식은 자기효능감과 주관적규범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6: 사회적인식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사회적인식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사회적인식은 주관적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3 네트워크와 창업의도

네트워크란 창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 정서적, 기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세력의 존재이다(Gnyawali & Fogel, 1994). 창업자의 환경 및 창업기업의 주변 환경까지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창업자의 환경적 인식을 파악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Gnyawali & Fogel, 1994). 윤방섭 (2004)의 연구 결과에서도 “네트워크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하였다. 예비 창업자는 창업기회를 포착하고 창업에 필요한 자원, 즉 정보, 지식, 인력, 자금 등을 조직화함으로써 창업을 하게 된다(Shane & Venkataraman, 2000). 따라서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9: 네트워크는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0: 네트워크는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네트워크는 주관적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4 창농정책과 창업의도

예비 창업자는 창업 전에 다양한 정보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제도는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축적된 지식 및 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창업에 대한 위험성을 낮춰서 실질적인 창업에 도움을 주고 창업을 촉진시키며 창업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김영선, 2015). 다양한 창업지원제도는 창업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고 창업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하거나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역량, 지식, 간접 경험을 제공해 준다. 창업자에 대한 창농정책은 창업 교육과 자금지원으로 농업 분야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창농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2: 창농정책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창농정책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창농정책은 주관적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3.1 표본의 선정

본 연구를 진행함에 수립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의 실증모형은 청년 농업 예비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네트워크, 창농정책 그리고 사회적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규범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농협중앙회 미래농업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수강중인 청년농부사관학교 교육생과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농업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 3.2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에 대한 조사방법은 지면 설문지를 사용한 직접 설문방식과 구글 설문을 활용한 인터넷 설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농업관련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였거나 농업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 농업 예비 창업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의 동의를 얻어 설문지 300부를 배부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중 263부가 회수되었으며,

조사기간은 2018년 10월 2일 부터 2018년 10월 27일까지 약 26일 동안 설문조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설문은 263부를 회수하였고 미 응답이 한 문항이라도 있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설문지 15부를 제외한 248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 3.3 자료의 분석방법

다양한 통계 기법들 가운데 구조방정식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은 잠재변수들의 인과관계와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통계기법이다(Hair et al., 2013).

SEM을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Urbach and Ahlemann, 2010; Barroso et al., 2010; Hair et al., 2011; Hair et al., 2013). 첫 번째 접근법은 주로 이론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CB-SEM이며, 두 번째 접근법은 탐색적 연구에서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주로 사용되는 PLS-SEM이다(Hair et al., 2013).

이 연구에서는 청년 농업 예비 창업자의 개인적특성, 사회적인식, 창농정책, 네트워크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과 주관적규범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통계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SPSS 23.0과 AMOS 22.0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분석을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기술통계를 통해 측정 변인의 특성과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평균, 표준편차, 왜도 그리고 첨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 변인의 내적 일치도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를 확인하였다.

셋째,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경로 모형의 적합성을 판별하기 위한 적합도는  $\chi^2$ , RMSEA, TLI, SRMR, CFI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간접효과 확인을 위해 Bootstrapping 절차를 이용하여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개별적 간접효과의 확인을 위해 팬텀변수를 사용하였다.

## IV. 실증분석

가설 1은 개인적특성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분석결과 개인적특성은 창업의도( $\beta=.120(.024\sim.221)$ )에 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p<.05$ ). 그래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가설 2는 개인적특성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분석결과 개인적특성은 자기효능감( $\beta=.462(.363\sim.524)$ )에 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001$ ). 그래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가설 3은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분석결과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 $\beta=.174(.050\sim.299)$ )에 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p<.01$ ). 그래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가설 4는 개인적특성은 주관적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분석결과 개인적특성은 주관적규범( $\beta=.216(.113\sim.322)$ )에 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p<.001$ ), 따라서 가설 4는 지지되었다.

가설 5는 주관적규범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관적규범은 창업의도( $\beta=.371(.241\sim.461)$ )에 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p<.001$ ) 확인했고 가설 5는 지지되었다.

가설 6은 사회적인식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 인식에서 창업의도로의 경로가  $-.051(-.131\sim.024)$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서( $CR=-.993, p=.321$ ) 해당 가설 6은 기각되었다.

가설 7은 사회적인식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인식은 자기효능감( $\beta=.122(.014\sim.184)$ )에 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p<.05$ ), 가설 7은 지지되었다.

가설 8은 사회적인식은 주관적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인식은 주관적규범( $\beta=.146(.051\sim.254)$ )에 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 그래서 가설 8은 지지되었다.

가설 9는 네트워크는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트워크는 창업의도( $\beta=.114(.030\sim.213)$ )에 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p<.05$ ), 가설 9는 지지되었다.

가설 10은 네트워크는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트워크는 자기효능감( $\beta=.184(.117\sim.297)$ )에 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p<.001$ ). 따라서 가설 10은 지지되었다.

가설 11은 네트워크는 주관적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트워크는 자기효능감( $\beta=.184(.117\sim.297)$ )에 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p<.001$ ). 따라서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가설 12는 창농정책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창농정책은 창업의도( $\beta=149(.051\sim.247)$ )에 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p<.01$ ). 따라서, 가설 12는 지지되었다.

가설 13은 창농정책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창농정책은 자기효능감( $\beta=.218(.129\sim.328)$ )에 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p<.001$ ), 가설 13은 지지되었다.

가설 14는 창농정책은 주관적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창농정책은 주관적규범( $\beta=.156(.070\sim.268)$ )에 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01$ ). 가설 14는 지지되었다.

<표 1> 가설의 채택여부

독립		종속	$\beta$ (로우~하이)	B	SE	CR	가설
개인적특성	→	창업의도	.120(.024~.221)	.241	.120	2.014*	채택
개인적특성	→	자기효능감	.462(.363~.524)	.527	.055	9.599***	채택
자기효능감	→	창업의도	.174(.050~.299)	.304	.114	2.664**	채택
개인적특성	→	주관적규범	.216(.113~.322)	.342	.089	3.847***	채택
주관적규범	→	창업의도	.371(.241~.461)	.469	.071	6.647***	채택
사회적인식	→	자기효능감	.122(.014~.184)	.118	.047	2.489*	채택
사회적인식	→	주관적규범	.146(.051~.254)	.196	.077	2.557*	채택
네트워크	→	창업의도	.114(.030~.213)	.139	.067	2.071*	채택
네트워크	→	자기효능감	.184(.117~.297)	.128	.035	3.702***	채택
네트워크	→	주관적규범	.315(.198~.419)	.304	.056	5.436***	채택
창농정책	→	창업의도	.149(.051~.247)	.241	.087	2.767**	채택
창농정책	→	자기효능감	.218(.129~.328)	.202	.046	4.398***	채택
창농정책	→	주관적규범	.156(.070~.268)	.201	.074	2.703**	채택
창농정책	→	주관적규범	.156(.070~.268)	.201	.074	2.703**	채택

\*  $p<.05$ , \*\*  $p<.01$ , \*\*\*  $p<.001$

## V. 결론

본 연구는 청년 농업 예비 창업자의 개인적특성,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 창농정책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과 주관적규범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농협 미래농업 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청년농부사관학교 학생들과 청년 창업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농부들 그리고 농업 창업에 관심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개인적 특성의 3가지 하위요인인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혁신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농업 예비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이 창업에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창업의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특히 개인적 특성에서는 성취욕구가 창업의도에 상대적 영향력이 더 높다는 (이상기, 2015)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둘째, 개인적 특성이 자기효능감과 주관적규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농업 예비 창업자의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규범이 긍정적이면 창업의도를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연구인 (강개석, 2018)의 연구 결과를 지지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사회적인식과 창업의도, 사회적인식과 주관적규범, 사회적인식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사회적인식의 개선을 통해 농업 분야 청년 창업분야의 육성에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네트워크와 창업의도, 네트워크와 주관적규범, 네트워크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사회적 자본인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해서 창업분야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시사하며 네트워크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다섯째, 창농정책과 창업의도, 창농정책과 주관적규범, 창농정책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농업분야 창업의 경우 창농정책이 효과를 본다는 의미이며 효과적인 창농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후속 연구를 통해서 창업을 활성화해야 하겠다.

여섯째,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의 관계와 주관적규범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는 모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기효능감과 주관적규범의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jzen, I.(2005). *Attitudes, personality, and behavior*. Maidenhead, Berkshire, England, New York, Open University Press.
- Johnson, B. R.(1990). Toward a multidimensional model of entrepreneurship: The case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the entrepreneu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4(3). 39-54.
- Kuratko, D. F., & Hodgertts, R. M.(2000). *Effective Small Business Management*, 7th Edition. Mishawaka: Better World Books.
- Shane, S., & Venkataraman, S.(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217-226.